



아돌프 슬라터 박사의 시편 69편에 대한 탁월한 견해와 이 견해의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제호

1. 아돌프 슬라터 박사의 시편 69편에 대한 탁월한 견해와, 이 견해의 보완의 필요성

아돌프 슬라터 박사(1852-1938)께서는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을 한번은 일반 독자들을 위해, 한번은 해석학자들을 위해서 썼으나, 그가 성경의 어느 한 장이나 한 부분의 중요성을 특별히 지목해서 강조하거나 주해했던 예는 필자가 본 그의 세 권의 저서들과 그의 「전기(傳記)」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다만 시편 69편에 대해서만은 예외였습니다.

박사께서는 그의 신약신학 분야의 저서, 「그리스도의 역사」(The History of the Christ, tr. by A. Köstenberger, Baker, 1997, p. 216)에서 기록하기를 ‘예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수난과 영광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9장이나 11장의 기록들은 그 표현들이 불경건하다(ungodly)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그 육적인(fleshly) 성격 때문에 이 예언들을 자신의 메시아 예언으로는 전혀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 시편 22편과 69편을 그는 자주 인용하셨다’(抄譯)고 썼습니다. (한글판, 한제호 역, 2007, 자연, 하권, p. 31).

박사는 이사야서의 그 두 장에 대한 그의 이러한 견해를 통해서 그 예언들에 나타난 언어의 과장(誇張)과 허식(虛飾)의 경향이 복음의 증거에는 무익함을 솔직하게 밝혔던 것입니다.¹⁾

박사의 이 견해는 첫째로 시편 69편의 뛰어난 복음적인 성격을 박사께서 바르게 지목했던 점과, 둘째로는 복음서들의 기록에서부터 볼 수 있는 교회의 설교의 간결성(serenity, ellipsis)의 유지의 필요성²⁾과, 또 그 회복을 위해서 그가 대답하게 이 발언을 하셨다는 점에서 그의 이 견해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박사의 이 견해는 극히 탁월한 것이라고 필자는 봅니다.³⁾

또 박사께서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역사’의 하권인 「사도들의 신학」(The Theology of the Apostles, tr. by A. Köstenberger, Baker, 1999)에서 동일한 다윗의 시편 69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시편 69편의 성경에 의거해서 십자가를 자유롭게, 또 기쁘게 지셨는데, 이 성경은 그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었고, 이 때문에 그는 제자들과의 최후 만찬 자리에서 “내 피와 살을 많은 사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영문 원서, p. 191).

박사의 이 진술 역시 보통 해석자들에게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심오한 그의 성경 이해의 경지를 단적으로 엿보게 하는 것인 동시에, 다윗의 시편 69편의 중요성을 그가 다시금 극명하게 증거했던 또 하나의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시편 69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다음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공포와, 그 고통 (1절-15절).
2. 다윗의 이신칭의(以信稱義) 확신 터득의 과정 (16절-33절).
 - (1) 다윗의 회개와 용서의 간구, 및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청원 (16절-25절).
 - (2) 다윗의 원수들은 결코 받지 못할 이신칭의(以信稱義) 은혜의 비밀을 다윗이 상세하게 고백함 (26절-33절).
3.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찬송함 (34절 -36절).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 눈에 먼저 띄는 특징의 하나는 그 전반부(1절-15절)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진술한 죄의 고백(5절)과, 그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묘사함에 있어서 시인은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가리켜서 “물들”(1절),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2절), “수렁”, “깊은 물”(14), “큰 물, 깊음, 웅덩이”(15) 등 무려 아홉 번이나 반복해서 “물”로 거듭 표시를 한 점입니다. 사람이 실수(失手)로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그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물은 3000 년 전 다윗의 심정에서나 오늘 우리의 경우에서나, 또 노아의 홍수 기록에서나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두렵고 절박한 생명의 위협임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인데, 다윗은 이 상징을 여기서 실감 넘치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죄벌 앞에서의 죄인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마음의 동요에 대한 시인의 이 묘사는 우리의 복음 설교에서도 극히 유용하게 원용(援用)될 수 있는 실존적(實存的) 자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자료를 잘 원용해서 그의 오순절 설교(행 2:25)에서 큰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⁴⁾

그러나 이 시에서 나타난 가장 깊고 또 중요한 교훈은 물론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그가 터득했던 이신칭의(以信稱義)(창 15:6)의 확신의 고백입니다(16절-34절).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로 인한 그 고난을 가리켜서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훼방”(7, 9)이라고 거듭 말하는데, 그가 자신의 죄벌을 가리켜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또는 “내가 주를 위해 받는 훼방”이라고 여기는 일은 보통 사람의 생각이나 이치(理致)에서 볼 때는 상궤(常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복음의 큰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죄인이 은혜 안에서 친밀한 관계에 들어오게 된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 안에 이신칭의의 기초가 놓여짐을 다윗은 바르게 보여 주었고, 다윗의 이 계시(啓示)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두려움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기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반면 교사(反面教師)임을 보여 주는 동시에,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豫表)(9절: 요 2:17, 21절:

마 27:34) 입을 보여 줍니다. 즉 다윗이 이 시에서 “구원의 진리”(13), “구속(救贖)”, “속량(贖良)”(18) 등 하나님의 무상(無償) 은총의 교리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개념들을 거듭 명료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의(義)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거듭 확인(確言)함으로서(27-28절) 이신칭의 교리의 전적(全的)인 은혜성을 확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33절에서 그는 이신칭의의 비밀을 이렇게 심오하고 결정적인 언사(言辭)로 장엄하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囚禁)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동물도 그리할찌로다”(33절).

다윗이 여기서 말한 “궁핍한 자”,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금(囚禁)된 자”는 다윗 자신처럼, 하나님께 과연 큰 죄를 지었고, 따라서 영적으로 수인(囚人) 같이 부자유하고 궁핍하게 되었으나, 사실은 그 수인(囚人)의 몸 같은 부자유(不自由)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신자로서의 “가난한 마음”의 삶을 오직 순종과 인내로서 감수하는 사람들(6절: 마 5:3, 4)의 표본이 곧 다윗임을 가리킵니다. 더 나가서 다윗의 이 말은 죄인들의 죄와 그 죄벌로 인한 부자유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역리적(逆理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전보다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살게 된 사람들(7절-13절)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의 “곡읍(哭泣)과 금식과 영혼의 경성(警醒)”(10-11)은 그의 윤리의 완성을 도왔습니다.

이 역리(逆理 paradox), 곧 이른바 “복음의 비밀”(막 4:11, 롬 16:25, 고전 2:7, 엡 1:9, 3:3, 4, 5:32, 6:19, 골 1:26, 27, 2:2, 4:3, 딤펴전 3:9, 16)이 곧 죄인의 이신칭의의 근거임을 다윗은 이 시에서 매우 선명하게 계시하였습니다.⁵⁾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다윗의 시편 69편은 과연 슬라터 박사께서 것처럼 이 시를 유별나게 중요시 하셨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리만큼, 이 시는 기독교 복음의 깊은 핵심을 명확하게 계시했으며, 따라서 필자 역시 오래 전부터 이 시를 그렇게 주목해 왔었는데, 슬라터 박사의 이 견해를 읽고 나서부터 필자의 이런 생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슬라터 박사의 전기, 「독일 최대의 성경신학자 아돌프 슬라터」(W. Neuer 저, R. Brockhaus, 1988. Eng. tr. by R. W. Yarbrough, Baker, 1995. 한글판: 한재호 역, 자연, 초판, 2002, 재판, 2004)에 의하면 박사는 ‘신학과 교회를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던 이’로 기록되었습니다(한글판, p. 148, 192).

그런데 교회 개혁의 일차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설교의 원형(元型)의 복원(復元)에 있다고 필자는 봅니다. 즉 우리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시범적(示範的) 설교들의 원형(pattern)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설교들의 원형을 우리의 설교에서 모범적(paradigmatically)으로 따르게 되는 데서부터 교회 개혁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고 필자는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설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 먼저 이 두 설교가 복음을 극명하게 제시했던 다윗의 시들(시편 2편, 16편, 110편)을 그 본문(本文)으로 삼고 있는 점입니다.⁶⁾ 이로서 그 두 설교들은 복음의 명쾌성(lucidity)과 간결성(serenity, ellipsis)을 심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들은 이처럼 큰 열매들을 거두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봅니다.

즉 필자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늘 우리의 설교들에서도 두 사도들의 경우에서처럼, 다윗의 역사(歷史)와 그의 시편에 대한 이해가 그 본연의 자리를 찾게 되고,⁷⁾ 우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다윗의 시편들의 원용(援用)의 법칙을 터득하게 될 때에 교회 개혁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고 필자는 봅니다.

기독교 설교의 핵심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리적(逆理的)인 사죄의 비밀을, 솔라터 박사의 시편 69편에 대한 탁월한 견해처럼, 솔직하고 간명(簡明)하게 선포함이 그 핵심이라고 필자는 봅니다(마 9:13, 11:28, 롬 3:23, 24, 딤후 1:15)⁸⁾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복음을 간명하게 말씀했었는데(마 9:13, 눅 15:7, 요 9:39), 교회는 주의 이 방법을 원점(原點)에서부터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메시아 시들에서 나타난 복음의 간명성(簡明性, serenity)의 현저한 예를 또 하나 들자면 그의 시편 141:6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의 관장(官長)들(쇼페팀, 사사(士師)들)이 바위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달(甘)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라고 다윗은 읊었는데, 그가 죄인 중의 죄인인 자신의 말을 가리켜 “단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신했었고, 따라서 자신의 그 말을 “무리”, 곧 많은 청중이 “달게”(기쁘게) 들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이 확신을 그렇게 담대하게 기록하고 선포했던 사실은 그가 여기서 복음의 역리(逆理)를 얼마나 명쾌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복음의 명쾌성이 청중에게 대하여 의당(宜當) 가지게 되는 힘 있는 상관성(relevancy)과, 또 그 탁월한 효력을 그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득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바위에 던져져서 멸망할 관장(官長)들”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비극적인 관장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기록은 단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2. 발터 부룩케만 박사의 다윗 연구 개관

여기서 다윗 연구로 이름이 알려진 미국 구약학자 발터 부룩케만(Walter Brueggemann) 박사의 견해를 간추려서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부룩케만 박사는 그의 저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상(想像)과 기억 속에 있는 다윗의 진상(真相)」(David's Truth in Israel's Imagination and Memory), Fortress Press, Second Edition, 2002)의 ‘서론’ 말미에서 그가 이 저서를 내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상충(相衝)하는 진리”(“truth in conflict with truth”)에 관한 나의 감각(sense)을 통해 내가 여기서 제시하려는 이 “다윗의 진상(真相)”은 우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적인 실재(a foundational reality)라는 전제 아래서 출발되었다. 미국 문화, 특히 미국의 교회 문화의 단조롭고 균질화(均質化, homogenized)된 경향 안에서는 서로 상충하는 소리들과 상호 대립되는 진리들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밑줄 필자). 나의 이 고찰에 들어 있는바 하나의 중요한 목회적 책임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용어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은 살아 있는 실재(lived reality) 속에 있는 복잡성(complexity)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주제라는 점이다.

즉 나의 이 견해는 하나의 큰 목회적 책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곧 “진리”(The Truth)라는 것은 곧 살아있는 실재(reality)의 복합적인(complex) 성질과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복합적 실체와의 교섭 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러나 이 현저한 복합성은 흔히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그릇된 균형(均衡)의 요구 안에서 은폐되고 있음을 우리의 청중으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나는 우리가 성경본문 자체를 그 긴장감 있는 복합성 안에서 읽어야 하고, 또 체험해야 하는 일은 곧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자신들의 존재를 동일하게 긴장감 있는 복합성 안에서 실행에 옮기는 일과 같다고 믿는다. (밀줄은 원문에서 이태릭). 우리 사회와 우리의 교회 문화 안에서는 우리가 오래 동안 우리의 삶 안에서도 체험하게 되는 이 성경 진리의 이중(二重)의 복합성(twin complexity)의 진행을 이른바 경건함, 이성주의(理性主義), 또는 교리 등을 가지고 거부해 왔었다.⁹⁾ 성경 본문과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이중(二重)의 거부는 물론 죽음의 선고(a recipe for death)를 초래했었다.

우리가 열왕기 상 15:4-5와 그 앞에 나오는 삼하 11장-12장을 읽어보면 이 이중(二重)의 복합성을 부인하려 했던 다윗은 마침내 그를 죽인 칼(삼하 12:10)을 경험해야만 했었고, 따라서 그는 그 사실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을 즉시 인정했던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삼하 12:13).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다윗사(史)의 본문을 읽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진리와 이 성경의 긴장감 있는 복합성과의 교섭을 통해서만 평화와 정의(正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제언(提言)하는 바이다.

더 나가서 이러한 복합성의 부정(否定)은 우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의 강압적인 마비상태와 무도(無道)한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다(밀줄 필자). 이 성경 본문의 긴장감 있는 복합성과 우리 삶에서의 긴장감 있는 복합성이 함께 공유(共有)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성실한 해석의 공동체(= 성경을 성실하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들과, 그 설교를 성실하게 듣는 청중의 공동체, 필자) 안에서는 다윗에 관한 이러한 본문들이 거듭 읽혀져야 만 하고, 이해되어야 만 하고, 해석되어야 만 하고, 또 우리의 깨어 있는 삶, 곧 마침내는 은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차(假借) 없이 폭로되고 수용되어야만 할 우리의 신실한 삶을 위한 유일한 길로 우리 자신도 또한 체험해야 만 하는 길, 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야 만 함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진리를 말하는 본문들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다! 나는 본서의 이 재판(再版) 또한 내 형님 에드(Ed)에게 바치는데, 그는 우리 중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로 결심하고 계속 서 있으며, 이는 나를 계속해서 매우 기쁘게 하는 사실이다’(재판의 서론 중에서, p. xv-xvi).

이 ‘재판(再版)의 서론’에 이어서 게재된 본서의 ‘초판 서론’은 다음 같이 끝나고 있습니다(p. xx).

‘나는 이 책을 내 형님 에드워드 D. 부룩케만에게 바친다. 이 책은 그의 불안한 신앙(restless faith)과, 그의 위험한 열정(dangerous candor)과, 그의 이웃에 대한 정력(caring energy)을 축하하기 위한(in celebration) 것이다. 나는 이 책을 그와, 또 것처럼, 우리를 새로움(newness)으로 부르는 진리를 감히 상상하는(imagine)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바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낡은 진리를 맥 빠지게(flattening) 고수(固守)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고, 인식론(認識論)의 수레들(wagons)을 계속해서 채

바퀴 돌리듯 돌리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기묘한 길들을 가기 위해서(for the ways of oddness) 거부하고 항거하는 이들,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말 줄 필자) 이로 서 있다. 나의 형님은 그 부름 받은 무리 속에 있다.

부룩케만 박사의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그의 형님과 함께, 그리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확신의 전모(全貌)가 무엇인지를 엿보게 합니다.

그는 본서의 앞부분(p. 4-7)에서 다윗에 대한 바른 평가가 근본부터 극히 어려운 점을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다윗에 대한 평가는 전부터 그를 마적단(馬賊團)의 한 두목 정도로나 보는 견해와, 우아한 신사(an elegance)로 보는 견해와의 차이만큼이나 컸음'을 지적하고 나서, 다윗을 '마적단의 한 두목' 정도로 보는 견해는 성경을 '낭만적인 가식(假飾)'을 가지고 안일하게 해석하는 이들의 입장, 이들에 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나?"라고 물었던' 정도의 안일한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부룩케만 박사는 봅니다(p. 6).

"다윗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진리 자체의 은밀성(隱密性)을 전제해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상상(想像)의 여지(餘地)를 두고, 그것의 개진(開陳)의 시기는 언제인가?¹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박사는 말합니다(p. 5).

따라서 "다윗의 진실을 파악하는 일은 곧 신약성경에서 예수와 사도들이 다윗사(史)를 어떻게 원용(援用)했었는지를 고찰하면 결코 '불가지(不可知)의 문제'가 아니며, 그 진실의 '전체적, 충만한 소리'(all, full voice)를 듣는 일(p. 5)은 곧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뤄진다고 필자는 보는데, 부룩케만 박사의 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아돌프 슬라터 박사에게서처럼, 본서에서 부족함을 필자는 우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부룩케만 박사께서 중요하게 거론한 문제는 당연히 "다윗의 진실"의 공공성(公共性, civilities)의 문제, 즉 다윗 같은 배교자(背教者), 변절자(變節者)가 어떻게 해서 선민(選民)의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며, 불법이 어떻게 해서 합법(合法)이 되었는가? 라는 '새로운 다윗(the New David)의 변화'의 문제입니다(p. 12-13).

이 물음에 대해서 부룩케만 박사는 '다윗은 이스라엘사(史)의 중심에 있으며, 그는 그 역사의 조성자(造成者) (the maker of its history)이고, 그의 공동체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 자'¹¹로서, '그 만이 그 역사적 과정에서 유일한 실제적 행위자(the only real actor)였고, 그가 그 공동체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다윗이 그 공동체에게 주었던 희망이 그 공동체에게 주었던 것은 견고하며, 명징적(明徵的, explicitly)으로 정치적인 희망¹²이었다'고 박사는 결론 내립니다(p. 26, 101). 그리하여 다윗은 그의 윤리와 예수 증거의 사명 완수 양면에서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들"(마 19:30, 20:16)의 표본이라고 박사는 봅니다(p. 13).¹³

본서에 나타난 부룩케만 박사의 다윗사(史) 연구의 특징들 중의 또 하나는 사무엘서와 역대기(歷代記)의 다윗사(史) 취급의 현저한 차이에 관한 박사의 통찰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르게,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왕위(王位)를 탐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계락을 도모하지 않았었다'는 박사의 견해(p. 102-6)와, 이러한 "새로운 다윗"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像)에 사무엘서보다 일보 더 가까운 그림자'로 본 박사의 견해(p. 102)는 크게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박사는 여기서부터 다윗의 '신앙적인 의표성(儀表性, modality)'을 논하는데, 즉 다윗의 신앙에서

나타난 '소망'이 곧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의 기초라는 것입니다(p. 110-112).

“다윗의 진실”은 쉽게 알기가 어려운(elusive) 문제이며, 속단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다윗은 차라리 사울이나 솔로몬보다도 우리와 더 가깝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p. 113-114)과, “다윗의 진상”은 외려 우리들 자신의 실상의 개진(開陳)(disclosure of our reality)에 필요한 우리의 ‘불안과 열정’(restlessness and eagerness)의 모델을 우리는 차라리 그에게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희망은 곧 예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부룩케만 박사는 말합니다(p. 117-118).

박사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다윗의 진상(眞相)”에 관한 성경의 이러한 지식은 곧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며(p. 5, 114), ‘다윗의 이 초상(肖像)은 곧 우리 자신의 초상이고, 그것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좋은 충고이며’(p. 39), 따라서 ‘다윗의 진상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하는데’(p. 6), 그 이유는 이 기록들은 곧 ‘인간의 자기 확인(self-assertion)의 행위의 근본 동기(動機)와, 자유, 권력에 대한 인간 최초의 참된 주시(注視)이며,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박사는 단언합니다(p. 42). 박사는 심지어 말하기를 ‘다윗 이전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그 예비 과정에 불과했으며, 그것들은 모두 다윗에 관한 기록들에 따르는 하나의 각주(a foot note)로서 취급될 수가 있다’고까지 말합니다(p. 101).

부룩케만 박사는 이 책의 ‘결론’(p. 114-118)에서 아래와 같은 물음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1. ‘죄인 다윗’과 ‘믿음의 사람 다윗’ 중 누가 진정한 다윗인가?
2. “다윗의 진상(眞相)”을 통해서 인간의 권력과 성실성에 관해 무엇 이 발견되었는가?
3. ‘진정한 다윗’은 누구임을 인지(認知)했던 이들은 누구였는가?
4. 다윗의 무엇이 우리에게 끝없는 흥미의 원천(源泉)이 되고 있는가?
5. 왜 성경의 기록은 사울이나 솔로몬보다도 다윗에 관해서 더 많이 말 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 물음들에 대한 부룩케만 박사 자신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연구가 오직 구약성경 중에서 다윗 관련 본문들에만 한정되었고, 따라서 신약성경을 언급하지 못했음을 밝혔고(p. 117),¹⁴⁾ 아래와 같이 그는 답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서는 ‘사람은 다윗 뿐 아니라 누구나 모두 그 내부(interior)에서는 선과 악의 기능이 항상 동시에 혼재(混在)하는 복합적이며 다기적(多岐的, poly-valent)인 성질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실을 다윗의 역사는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회개와 순종, 그리고 우리를 어리둥절케 할(stunning) 정도로 큰 그의 믿음 뒤에서도 여전히 그의 변함없는 자기주의(self-serving)의 자세를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p. 47). 또 이 이유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위험(危險, risk, jeopardy)과 상처(scars)를 동반하게 되는 법’이라고 저자는 거듭 전제합니다(p. 3, 5, 118).

둘째 물음, ‘다윗의 진상을 통해서 인간의 권력과 성실성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부룩케만 박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 성정(性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라도 결코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control) 수 없는 하나님에게 그는 마침내 자신을 최후적으로 굴복시키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성실성을 찾게 되었다’고 저자는 답합니다(p. 47).¹⁵⁾

따라서 지금 자율주의(自律主義)를 내세우는 현대인들이 “만사(萬事) OK”, “우리는 모두 OK”를 계속 말하고 있는 현실과, 세속인들의 로맨틱한 무사안일주의와, 사람의 모든 신화(神話)들과, 모든 미신 종교들에 대해서는 종지부(終止符)가 요구되고 있음이 곧 “다윗의 진상(真相)”을 통해서 나타난 인간의 성실성의 발견이라’고 저자는 답합니다(p. 37).

셋째 물음, ‘진정한 다윗이 누구임을 인지(認知)했던 이들은 누구였는가?’는 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물음으로 여겨지는데, 이 물음에 대한 부룩케만 박사의 답을 먼저 소개한 다음, 필자의 견해도 말씀하겠습니다.

부룩케만 박사는 이 물음들에 대한 사회학, 문학, 심리학, 신학적 입장 등에서 그가 얻은 해답들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고(p. 6-7), 또 교회가 “다윗의 진상(真相)”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과(p. 1),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교회의 결의(resolution)의 부족’도 그는 지적했습니다(p. 44-45). 즉 부룩케만 박사는 “다윗의 진상”을 인지하려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거의 없다는 결론을 먼저 제시한 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넷째 물음, ‘다윗의 무엇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흥미의 원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부룩케만 박사는 ‘첫째, 다윗은 우리와 같다는 점, 둘째,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다른 놀랍고 큰 믿음을 가졌는데, 이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 하나님과의 참 거리감,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각각 다른 모습들, 장려(壯麗)하고 위대한 모습(grandeur and greatness)을 동시에 보여 주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p. 114).¹⁶⁾

다섯째 물음, ‘왜 성경의 기록은 사울이나 솔로몬에 관해서보다도 다윗에 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부룩케만 박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열광주의자가 되지 않았고, 그것들을 언제나 주저하는 (relinquishing) 자세로 받았으며, 무도(無道)하고, 또 교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놀라운 인간적 예민성(human sensitivity)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profound yielding)를 그는 동시에 소유했었기 때문인데, 그의 이런 영적 자세는 곧 요한일서 4:20-21이 말하는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답합니다(p. 115-116).

이 다섯 물음들 중에서 필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음, 즉 ‘진정한 다윗이 누구임을 인지(認知)했던 이들은 누구였는가?’에 대한 필자의 답을 이제 말씀드리면 ‘진정한 다윗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지했던 이’들 중 첫째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시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 기간에 그가 제자들과 대중에게 주셨던 여러 교훈들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다윗의 역사(歷史)와 시편들을 매우 자주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마 12:1-8, 21:16, 22:43-45, 27:46 등). 특히 그의 고난주간에,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의 시들을 거듭 거듭 인용하시면서, 자신에 관한 극히 심오한 비밀들을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요 19:24, 28, 36, 37).

예수님 다음으로 ‘진정한 다윗이 누구였는가’를 바르게 인지했던 신약시대의 인물들’은 이러한 예수

님의 다윗 관련 교훈들을 먼저 스스로 이해하고 나서, 그것들을 정확한 글로 후세에 남겼던 복음서의 기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어김없이 다윗의 시들을 그의 고통의 고비마다에서 인용하시면서 제자들과 군중을 가르치셨던 주의 계시들 모두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겼던 요한 사도(요 19:24, 28, 36, 37)는 다윗을 가장 바르고 깊게 인지했던 이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 시해야 할 사도였다고 필자는 봅니다.¹⁷⁾

그 다음으로 다윗을 바르게 인지했던 이들 중에는 다윗의 굴곡이 심했던 역사(歷史)와 그의 시편들, 특히 그의 메시아 시들을 잘 보존하고, 편집해서, 후세에 풍부하게 남겼던 이스라엘의 궁중 사관(史官)들이었습니다.¹⁸⁾

그 다음으로 다윗을 바르게 이해했던 이들은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 기록된 두 편의 시범적(示範的)인 설교들을 남겼던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설교들에서 두 사도들은 구약성경에서 다른 본문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두 사도는 동일하게 다윗의 시편 2편, 16편, 110편만을 그들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외에 이사야 55:3의 다윗과 관련된 예언을 그의 설교의 본문으로 첨가했었는데(행 13:34),¹⁹⁾ 이 때문에 두 사도들의 그 설교들은 것처럼 큰 열매들을 거두었다고 필자는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설교들을 정확하게 기록에 남겼던 누가 역시 다윗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지했던 이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필자는 봅니다.

그런데 부룩케만 박사의 저서의 '성구색인(Scripture Index)'에 수록된 그의 시편들의 목록을 보면 놀랍게도, 에스라인 에단의 시 89편과, 무명의 시인의 작인 시 105편과 132편의 3편뿐입니다. 또 박사께서 자신의 그 다섯 물음들에 대해서 제시한 여타의 대답들(p. 114-118)에서도 다윗의 많은 메시아 시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부룩케만 박사 역시, 술라터 박사처럼, 필자의 위와 같은 이해, 즉 다윗의 역사와 시편들을 그렇게도 요긴하게 인용하셨던 예수님과, 기타 사도들의 시편으로부터의 극히 중요한 인용들에 대해서는 박사께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은 필자에게는 다시금 매우 기이(奇異)하게 여겨지는 점입니다.²⁰⁾

즉 이러한 부룩케만 박사에게서도 볼 수 있는 피상적인 다윗 연구의 자세는 곧 시편 69편을 그렇게까지 중요시하면서도 그 시의 저자 다윗의 실존적(實存的) 역사(歷史)와 그 시의 저작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탐구했던 술라터 박사의 연구 자세와 매우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라터 박사나 부룩케만 박사의 이러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상적이며, 중도에서 그치고 마는 성경 연구의 자세, 특히 다윗사(史) 연구의 자세가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필자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부룩케만 박사가 주목했던 “다윗의 진실” 또는 그의 진가(眞價)는, 부룩케만 박사 자신의 진술과 같이, 무엇보다도 다윗의 역사(歷史) 자체가 인류에게 주는 구원사적(救援史的) 교훈과, 또 그의 많은 메시아 시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의 ‘강력한 발언들’(powerful say)(「다윗의 진상」, p. 44-45)을 이스라엘의 사관(史官)들이 바르게 이해했던 점에 있었다고 필자는 봅니다. 그러나 부룩케만 박사 역시 예수님과 복음서 기자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다윗의 시들을 그들의 위대한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점(행 2장, 13장) 등을 본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다윗의 시편 인용들과, 그 예언들의 성취의 사실들을 정확하

게 보도하고 있는 점(요 19:24, 28-30)에서 다윗의 진가는 절정적(絶頂的)으로 나타났었다고 필자는 보는데,²¹⁾ 이런 중요한 사실을 부룩케만 박사 역시 이 저서에서 모두 간과(看過)하고 있습니다.

부룩케만 박사는 그의 넷째 물음, ‘다윗의 무엇이 우리에게 끝없는 흥미의 원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답하면서 다윗의 ‘하나님 인식(認識)과, 믿음에 대한 그의 이해의 새로움(newness)과, 그 새로움에 대한 그의 강력한 발언(powerful say)’(p. 44-45)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가 끝으로 말한 ‘강력한 발언’이라는 표현 안에 다윗의 시편들이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박사께서는 여기서 일보 더 나가서 다윗의 시들이 신약성경에서 그렇게도 요긴(要緊)하게 거듭 인용된 중요한 사실들을 본서에서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고찰했어야만 그의 저서의 제목, “다윗의 진상”에 부합한 내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봅니다. 박사의 이러한 연구 자세는 역시 슬라터 박사처럼, 용(籠)을 그리고 그 눈알을 그리지 않은 실수와 같다고 필자는 봅니다.

그러나 부룩케만 박사의 다섯째 물음, ‘왜 성경은 사울이나 솔로몬에 대해서보다도 다윗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박사의 답 가운데서 그가 지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상상(imagination)과 민족사(public history)의 기관(機關, engine)으로서의 “다윗의 진상”의 자원(資源)의 탁월성’을 박사께서 바르게 지적했고,²²⁾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실과 ‘모든 인간적인 것(human)에 대해 깊이 매료되고 있는 이스라엘 사관(史官)들의 감각의 예민성(sensitivity)’을 박사는 그 원인으로 들었고(p. 2, 38, 47), 이 때문에 구약성경은 사울이나 솔로몬에 대해서보다도 다윗에 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다고 부룩케만 박사가 본 점은 주목할 만한 견실한 견해라고 필자는 봅니다.

더 나가서 “다윗의 진상”에 대한 오늘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의 이유는 ‘다윗과 이스라엘 사관(史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오늘의 우리 다수의 이해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부룩케만 박사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위 인간 이해는 모두 ‘구태(舊態)에 아부를 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유착(癒着)되어 있는데 반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사관(史官)들의 인간 이해는 오늘의 우리의 이러한 견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의 진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계속해서 식을 줄을 모른다’고 부룩케만 박사는 바르게 지적했습니다(p. xx, 38).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믿음의 순수성이 오늘 우리의 피상적이고 가식적(假飾的)인 믿음에 의해서는 간과(看過)되거나 오해되고 있는데(p. 4),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부룩케만 박사는 이 저서를 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박사의 이 입장, 즉 ‘다윗사(史)의 자원(資源)의 풍부성과, 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했던 이스라엘 사관들의 감각의 예민성의 결합’을 정확하게 지적한 부룩케만 박사의 견해(p. 38)는 높이 평가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필자는 봅니다.

3. 조병수 박사의 슬라터 신학 평가

조병수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께서는 그의 논문, ‘Adolf Schlatter의 신학과 성경주석’(2001, 3, 31, 조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는 Basel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1871-3)하기 시작할 당시 특히 르네상스 사가(史家) 야곱 벌크하트(Jacob Burkhardt)에게서 역사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고, 여기서 그가 일생 견지(堅持)했던 ‘역사적 성경해석법’의 기반을 그는 닦게 되었다. 이 기반 위에서 그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의 생애의 성경

연구 원리를 터득했었다.

예컨대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도 볼 수 있는 대로, 그는 이 복음서의 각 단락(短絡)들의 연결성을 중요시하였으며, 그 각 단락들을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삶의 상황에서 형성되어 편집되고 전승되어 온 기록들로 보지 않고, 다만 처음부터 한 체계와 조망(眺望) 아래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록된 하나의 구성체”로 보았다.

그리고 그의 성경해석이 강한 설득력을 가진 것은 그의 배경사적(背景史的) 논증 때문이었다. 그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배경사적인 관찰을 도외시 아니 함으로써 마태복음서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공언(公言)할 수가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마태복음은 단순히 “신앙적인(geschichtlich)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인(historish)” 성경이었다. 즉 마태복음은 신앙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마태가 작성한 책이 아니라, 역사에서 일어났던 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이라고 술라터는 믿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확신했고, 우리는 복음서에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술라터는 확신했다. ---

우리의 관건(關鍵)은 교회와 성도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오랫동안 간직할 신학을 어떻게 하면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외면하는 신학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열린 보수주의 신학이란 내면적으로 자신의 무기와 도구를 가장 강력하고 날카롭게 준비할 뿐 아니라, 외향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사상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이다. 열린 보수주의는 세우는 보수주의이며, 싸우는 보수주의이다’.

조병수 박사의 이 견해에 필자가 얼마의 사족(蛇足)을 부친다면, 박사께서 말씀하신바 ‘교회와 성도가 외면하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신학’, 또는 ‘교회가 자신의 무기와 도구를 가장 강력하고 날카롭게 준비할 뿐 아니라, 외향적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사상을 끊임없이 표현하게 하는’ 신학의 길은,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돌프 술라터 박사나 발터 부룩케만 박사처럼 매우 탁월한 성경 해석상의 견해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견해들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견실한 역사적 고찰들을 반드시 추가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필자는 봅니다. 성경의 연구와 해석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중도에서 반절(半切)되는 성경의 연구 자세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지양(止揚)되어야만 한다고 필자는 봅니다.²³⁾

4. 다윗의 메시아 시편들과 기독교 윤리의 완성

여기서 기독교 윤리라는 개념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지게 되는 도의적(道義的) 의무를 가리키고, 그 완성이라는 개념은 곧 신자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게 된 윤리적 완전성, 즉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義)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律法)의 마침이 되심”(롬 19:4)을 선언하는 복음 안에서의 신자의 윤리적 완전성을 뜻합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자주 거론한 ‘다윗의 메시아 시편들’은 시편 2편, 16편, 22편, 40편, 51편, 69편, 그리고 141편 등인데, 이 시들 모두가 다윗의 죄와, 그 죄로부터 그가 받은 구원의 체험을 동시에 계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시들은 신자들의 믿음으로 인한 윤리적 완전성 또한 반증(反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들을 ‘메시아 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시들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의 오순절 설교(행 2:14-36)에서 그의 본문(本文)으로 인용하고 해석했던 시편 16편을 필자는 여기서 하나의 보기로 택하고, 이 시를 고찰해 봄으로서 신자의 윤리의 완성, 더 나가서 그 완성 안에서의 신자의 기쁨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필자가 이 시편 16편을 택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들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그의 설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원용(援用)했던 여러 인물들', 즉 예수님,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 등(p. 10 - 11)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특기할만한 인물이었는 데, 그 이유는 특히 그의 오순절 설교(행 2장)는 다른 아닌 다윗의 시 16:25-38의 해석이 그 주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이 본문의 주해(註解) 이외에 다른 말을 거의 하지 않았었고, 다만 결론 부분에서 다시 다윗의 시편 110:1을 추가 인용하고 나서, 결론으로 오직 한 마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40)고 간단하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설교 구성은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의 대부분을 드러서 부연(敷衍)하고 있는 이른바 '설교의 적용'이라고 부르는 교훈적이고 예화적인 설명의 첨가가 설교 본문의 주해보다도 단연 많은 부정적(否定的)인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2-3 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내용으로 추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가 행했던 설교는 적어도 한 시간, 혹은 그 이상의 분량이었을 것임으로, 따라서 우리의 이런 견해는 베드로의 설교의 본문 주해 중심의 성격을 지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매우 중요시해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 16편의 주해만을 통해서 그렇게도 큰 열매, 곧 "3000 명의 회개와 세례"를 당일에 이끌어냈었기 때문입니다(행 2:37-41).²⁴⁾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회고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마음 가득히 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그 오순절 날에 충만하게 체험했던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 큰 열매의 동인(動因)도 되기 때문입니다(행 2:14, 29, 38-39). 그런데 이 동인의 원천은 다른 아닌 베드로의 바른 설교 본문의 선택, 즉 시편 16편의 적절한 인용과, 이에 대한 베드로의 온당(穩當)한 해석, 그리고 끝으로 그의 이 설교에 감화력을 주셨던 성령의 역사뿐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 본문을 택하지 않고, 오늘 많은 설교들처럼 도덕적 설교를 할 목적의 본문을 택했다라면 그러한 열매는 결코 없었을 것으로 필자는 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의 서론에서 요엘 선지자의 성령 강림의 예언을 먼저 인용했었는데(행 2:16-21), 그의 이 인용은 어디까지나 이 설교의 서론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이 서론에서 언급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일부 설교자들의 해석적 입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고 필자는 봅니다. 서론과 본론을 혼동하거나 착도(錯倒)하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²⁵⁾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본론(행 2:22-36)에서 먼저 예수의 부활 사실을 선포(22-24)한 다음, 곧 이어서 이 예수 부활의 성경적 근거로서 그는 다른 아닌 다윗의 시편 16:8-11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많은 설교들과 베드로의 설교의 첨예(尖銳)한 차이는 단연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본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웠음이여 나로 요동(搖動)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행 2:25).

우리는 먼저 베드로의 이 말, “다윗이 저(=예수)를 가리켜 가로되”에서 실로 충격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즉 그 진리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천 년 후에 오실 “예수를 가리켜 말할 수 있었는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이어지는 발언,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시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다윗이) 알고 미리 보는 고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30-31)에서 “다윗은 선지자이며,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보고, 말했다”는 베드로의 증언들은 실로 큰 계시들인데, 이 말들의 의미하는바 중에서 먼저 “다윗은 선지자였다”는 베드로의 지적부터 우리는 참으로 진지하게 탐색(探索)해야만 합니다. 이 지적 안에 필자가 말하려는 ‘기독교 윤리의 완성’이라는 극히 중요한 진리를 해석할 열쇠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선지자”로서 천년 후에 오실 예수를 이미 믿음 안에서 알고, 보고, 믿고, 말하게 하셨던 하나님(30절)의 은혜 자체가 다윗의 이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먼저 그의 큰 죄를 다 사함 받게 하셨고, 더 나가서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다윗)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의 윤리적 요구가 충족되었고, 그 결과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음”도 그는 믿고 고백했습니다(27절).

즉 다윗의 이 믿음과 그의 이 고백이 곧 그를 윤리적으로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입술의 즐거움(=기쁜 찬송)”(26)과 “육체의 희망”(=부활의 소망)까지도 주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선언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선포했던 계시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10에서 말한 “주의 거룩한 자”(행 2:27)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이전에 먼저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이 칭호와 25절의 “요동하는 사람”은 동일인일 경우에만 문맥의 통일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25절의 “요동하는 사람”은 다윗을 가리키고, 27절의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면 문맥의 통일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즉 “요동하는 자”와 “주의 거룩한 자”는 모두 다윗을 가리키며, “요동하는 자 다윗”을 “주의 거룩한 자”로 일변(一變)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만 예수님은 이러한 다윗의 변화를 배후에서 성취시키셨던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따라서 26절에 기록된 다윗의 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에서 “나”라는 주체는 예수님이기 이전에 먼저 다윗이었습니다. 이 “나”가 다윗이 아니고, 어떤 해석자들의 견해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킨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음이 요동하여 하나님의 불드심을 받아야 하는 이”로 묘사했다는 부자연스러운 해석을 했던 셈인데, 이는 용납이 되지 않는 해석이고, 따라서 문맥의 통일은 여기서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상의 해석을 간단히 요약하면 베드로의 시편 16편의 인용과 그 해석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선포이기 이전에 먼저 다윗이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존(依存)했던 사실(30절 - 31절) 자체가 곧 다윗의 죄를 다 사함 받게 했었고, 더 나가서 그의 이

믿음이 그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혜까지도 이미 주셨으며,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온전해졌었고, 결국 다윗은 모든 신자들이 은혜로 받은 윤리적 완전성의 반면교사(反面教師)임을 증거하려는 데 베드로의 이 설교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의 청중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찢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50 여일 전에 예수를 죽였었다는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 또한 그들의 조상 다윗처럼, 마음과 실지 행위로 간음과 살인의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지나온 과거를 마음에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양심이 찢려서, 그 절규(絶叫)를 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렸던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믿음으로 인한 윤리적 완성은 그의 원수들(사탄들)의 대적(對敵) 행위들을 모두 면제(免除)시키지는 않았고, 그는 이 사탄의 훼방의 고통을 일생 항상 견디어야만 했습니다(시 22:6-8, 69:7-12). 이로서 그는 또한 신자들의 견인(堅忍) 교리의 실천의 반면교사가 되었음도 모든 관련 성경들은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의 기쁨과 입술의 즐거움”(26)은 그의 이러한 윤리적 완성에 대한 그의 감사의 열매였고, 그 감사는 동시에 그의 전도의 힘이었습니다(시 22:30-31, 40:9-10, 51:13-15 등).

따라서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에서의 시편 16편의 몇 절의 인용은 사실 이 설교의 바로 눈알과도 같고 핵(核)과도 같은 요충적(要衝的, pivotal)인 기능을 이 설교에서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의 전반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옵게 되었다”는 고백은 먼저 죄인 다윗을 찾아오셔서 항상 그의 앞에서 계시는 심판자이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다윗이 비로소 마음의 눈을 뜨고 정대(正對)하게 되었음을 계시하는데, 따라서 다윗의 이 고백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최초의 첫 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보여 주는 극히 중요한 다윗의 발언입니다. 이 사실은 아담의 범죄 직후의 기록(창 3:9-11)에서나, 신명기 32:35의 극히 의미 깊은 기록 등을 통해서 밝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35, “보수(報讎, vengeance)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失足)할 그 때에 (내가) 갚으리로다”는 하나님의 섬뜩한 말씀은 다윗이 말한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뵈옵게 된” 죄인의 몸서리치는 계속적 두려움을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심의 평소의 축적(蓄積)이 베드로의 청중의 회개의 부르짖음(“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의 기폭제(起爆劑)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베드로의 청중의 이 회개의 부르짖음(37절)을 그들이 예수를 죽였던 죄책 때문이라고만 보는 것은 피상적이고, 또 그릇된 해석의 결과라고 필자는 봅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의 청중의 예수 죽인 죄를 거듭 지적했으나(23, 36), 그 청중은 50 여일 전에 예수를 죽였을 때 뿐 만 아니라, 그 이전이나 또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죄책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마비상태에 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즉 그들의 내심(內心)은 그들의 평소(平素)의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요동하는’ 불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일 같은 무도한 죄까지도 범했던 것이었고, 그것은 마치 다윗의 ‘요동하는 마음’이 돌연(突然)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탈취까지 했던 경우와 같았습니다.

부룩케만 박사는 이러한 사실을 해석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인 살인자 라스콜리니코프의 내적(內的, interior) 동요(= 죄책감)의 치명적인 두려움을 예로 들어 말하기를 ‘죄인이 받는 내적(內的) 심판(interior judgement)은 제도적(institutional) 심판(= 법률, 사회적 인습 등에 의한 징벌)보다도 더욱 치명적’이라고 적었습니다.²⁶⁾

5. 한국성경신학회에 제출하는 필자의 제안

슬라터 박사께서 그의 「신약신학」 서적 두 권 모두에서 유독 시편 69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했던 사실은 그가 이 시편을 얼마나 크게 주목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시편에 대해서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필자로서는 슬라터 박사의 이 견해를 대하고 나서부터 그의 이 두 권의 서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도 이 부분일 것이라고 필자는 보게 되었습니다.²⁷⁾

그리하여 금번 필자가 이 논문을 통해서 한국성경신학회 회장님과 임원님들에게 차기 논문 발표회의 주제의 하나로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슬라터 박사께서 그토록 특별히 중요시했던 시편 69편에 대해서 박사는 그가 이 시편을 그렇게 중요시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자가 읽은 박사의 세 권의 서적들과, 박사의 전기, 「독일 최대의 성경신학자 아돌프 슬라터」 등에서까지도 박사의 시편 69편에 대한 언급을 필자는 그 이상 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시편 69편의 저자인 다윗 본인에 관해서나, 이 시의 집필의 내적(內的)인 동기나, 무엇보다도 이 시에서 특별하게 명료히 나타난바 그리스도인의 이신칭의(以信稱義)의 확신에 이르게 되었던 다윗의 신앙 심리의 오묘하고,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과정에 대한 묘사(시 69:26-28, 33) 등은 해석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필자가 슬라터 박사의 이상의 저서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슬라터 박사의 더 이상의 언급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슬라터 박사는 다윗의 시편 69편의 중요성을 일단 인정했으나, 그가 이 시편을 그렇게 중요시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들에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규명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8년 동안 필자가 슬라터 박사의 서적들을 적은 분량이나마 읽고, 번역하고, 상고했으나, 필자가 읽은 박사의 저서의 분량이 박사의 400권이 넘는다는 저서들의 양에 비추어 볼 때는 극히 적은 것이고, 특히 필자가 박사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1914)을 아직 읽지 못한 것은 필자의 큰 약점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읽은 박사의 신약신학 분야의 두 권, 그 중에서도 「사도들의 신학」에서는 이 저술의 전체 구조의 면밀성과, 그 세밀한 내용에 비추어 보든지, 또는 필자가 위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사도행전의 두 중요한 설교들(행 2장, 13장)의 본문들이 모두 동일한 다윗의 시편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든지, 다윗 자신의 삶의 역사(歷史)와 그의 메시아 시편들과의 관계에 대한 배경사적(背景史的) 연구는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슬라터 박사의 이 저서에서는 바로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박사의 관심은 이에서 매우 멀었습니다.²⁸⁾

거듭 말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행했던 그의 설교에서 다윗의 시편 16:8-11과, 또 동일하게 다윗의 작인 시편 110:1을 그의 설교의 두 주요한 본문들로 사용해서 매우 실존적인 내용²⁹⁾의 설교를 했었고, 그 열매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또 행 13장에 자세하게 기록된 바울 사도의 이방(異邦)에서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역시 다윗의 시편 2편과 16편이, 십년 전의 베드로의 설교에서처럼, 매우 흡사하게 그 본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행

13:33, 34).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설교의 서두(序頭)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참으로 그 함축하는 바가 풍부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청중과 독자들의 간담(肝膽)에 새겨지도록 전했습니다(행 13:22).

여기에 더하여 이 설교의 후반에서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 예수)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34절, 사 55:3의 인용)라는, 하나님 자신의 다윗에 관한 의미 깊은 말씀을 거듭 남겼습니다³⁰⁾. 그리고 그 설교의 열매는, 십년 전의 베드로의 설교에서처럼, 참으로 놀라웠습니다(행 13:42-52, 14:3-21).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첫 설교에서의 이 두 발언들(행 13:22, 34-35)은 우리 성경의 해석자들과 설교자들로서는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극히 중요한 발언들이라고 필자는 봅니다.

그런데 슬라터 박사의 「사도들의 신학」을 필자가 자세하게 살펴 본 바로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 두 편의 중요한 설교 자체가 모두 이 책에서 전혀 언급되지도 고찰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설교들의 본문으로 사용된 다윗의 시들 모두가 박사의 이 저서의 방대한 성구색인(Scripture Index)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학」의 말미(末尾)에 있는 ‘주제 색인’(Subject Index)에서는 ‘모세’, ‘복음서의 네 저자들’, ‘바울’, ‘사탄’, ‘네로(Nero)’ 등의 항목들은 있으나, ‘다윗’의 항목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색인’에 들어 있어야 할 ‘시편’(Psalms)의 항목 또한 없습니다.

또 박사께서는 「사도들의 신학」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수십 차례 거듭 언급을 하면서도, 멜기세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바 그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한 일체 언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과 다윗과의 관계는 창 14:17-24, 시 110:4, 마 1:1, 그리고 특히 마 12:1-8과 히 7:14-15 등에 근거해서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의 하나라고 필자는 봅니다.

슬라터 박사의 이러한 다윗사(史) 소외(疏外)의 학구 자세는 그의 별세 직전이던 85세-86세 기간에 그가 ‘유언’처럼 저술했던 「우리가 예수를 아는가?」에서 그가 자주 반복해서 언급했던바 ‘성경 연구의 맥(脈)의 중절(中絶)은 불가하며, 전후의 불일치(不一致)는 피해야만 한다’는 그 자신의 말(일어판 I, p. 225-7, 396)과도 어긋난다고 필자는 봅니다. (참고: 「전기」, p. 233, 236, 332).

이상의 사실을 대하게 된 필자는 숙고 끝에, 결국 이 사실의 뜻하는 바를 진솔하게 규명하는 일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에서 것처럼 중시(重視)된 다윗사(史)의 위상(位相)에 비추어 보아서, 둘째로는 오늘의 많은 피상적이고 앞과 뒤의 연결성이 결핍된 성경 해석에 근거한 설교들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한국성경신학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공동의 연구 주제로 채택하여 고찰해 보기를 필자는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슬라터 박사의 저서들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면밀하게 상고(詳考)도 하고, 또 필자가 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객관화하는 일 등을 성경신학회의 임원들과 회

원 여러분이 공동으로 진행할 기회를 가까운 장래에 가지게 되기를 필자는 간곡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8, 18) (전화: 031-705-6959).³¹⁾

- 1) '나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있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었다'는 슬라터의 말 참고. 또 각주 2 참고.
- 2) 슬라터는 복음서의 기록들에서 그 간결성과 생략성(ellipsis)의 예들을 제시하는 중에 예컨대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대화의 기록이 복음서에는 한 번도 없음을 지적했다(「그리스도의 역사」, 하권, p. 60). 그는 만년에 저술한 「우리가 예수를 아는가?」에서 교회의 다변(多辯)과 가식(假飾)의 화를 거듭 경계하였다(각주 3 참고).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세 가지 기초(基調)는 성경의 1. 정경성(正經性, canonicity)의 원리, 2. 생략성의 원리, 3. 이론화의 원리인데, 그 중에서 생략성 원리에 대하여 이상근 박사는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적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간결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그들의 예언을 선포함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그 예언을 기록하는 것까지도 혐기(嫌忌)하였다. 이와 같이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 구두(口頭)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사(豫言史)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강력한 전위대들이었다'. (「신약주해, 요한계시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4, p. 3). '구약과 신약의 기록법이 모두 그러하나 특히 복음서들에서 그리스도의 심오한 성품과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생략성(elliptic character)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크게 주목한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과묵성(寡黙性, reticency), 불확정성(indefiniteness)을 그들의 예언의 신적 근원의 증거의 하나로 보았으며, 특히 복음서 기록들의 특이한 간결성(brevity, sparsity), 소박성(sobriety), 긴축성(restraint) 등의 현상을 크게 주목하는 H. Ridderbos와 그의 동조자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복음의 계시에서 나타난바 신적 계시 활동에 의한 인본적 요소들의 후퇴와 신본적 요소들의 진출의 결과로 보며(The Coming of the Kingdom, p. 46, 330, 481, 590), 이것을 그 기록들의 신적 근원의 근거의 하나로 보고, 여기서 기독교 설교의 기본적인 비인본적 성격과 절제성, 간소성이 결정된다고 본다(O. T. Allice, The Unity of Isaiah,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2, p. 21-37). (필자의 미발간 논문집, 안양대학교 출판부, 1999, p. 29-30).
- 3) 슬라터 박사는 그의 생애 최후의 대작인 「우리가 예수를 아는가?」, (*Kennen Wir Jesus?*, 일어판, 新敎出版社, II, 1984, p. 267)에서 요 14:16, 17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는 가식적(假飾的)인 형성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제자들은 공허한 말, 자신 하나만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다변(多辯)하는 일, 욕심에 쫓겨 돌아다니면서도 사랑에 대해 다변하는 일, 모두가 반목하고 있는 실태(實態)를 다만 강제적인 의무감 때문에 고심하면서 감추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도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꾸며 말하는 일,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긍정하고, 또 자연 만을 결연(決然)한 동의(同意)로 승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구성되고 있는 종교, -- 이런 모든 것들은 소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진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어떤 기만행위도 하지 않게 되었고, 어떤 가식(假飾)도 그들 사이에서는 허용하지 않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의 인간들이 되었으며, 또 그들은 자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게 하심으로서 성령께서는 그들을 어떤 적(敵)에 대해서도 무적(無敵)의 존재로 만드셨으며, 그들의 말에 사람들을 모으는 힘을 주셨다.
- 4) 익사(溺死) 직전 사람의 생명의 위급함과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요동(搖動)함을 잘 표현한 다윗의 현저한 시구(詩句)들은 시 69:1-15 이외에도 시 16:8과 시 40:2 등을 들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열매 많았던 오순절 설교(행 2장)의 본문에서 그가 본문으로 택하고 해석했던 성경이 다름 아닌 다윗의 시 16:8, "그 (하나님)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라는 다윗의 이러한 위난(危難)과 그 와중(渦中)으로부터의 구출의 체험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심적(心的) 위난은, 다윗의 고백 같이, 사람이 범죄 했을 때(5절)와 혹은 그 범죄를 이따금 회상할 때뿐인가? 1절의 다윗의 고백의 긴급성과 통절(痛切)함에 비추어 보면 그 위난은 "밤낮 쉬지 않고" 계속됨을 계시록 12:9-10에 의해서 알 수 있다(각주 25 참고). 이러한 다윗사(史)의 배경이 슬라터 박사의 시편 69편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의 동기를 이루고 있었을 터인데, 이러한 배경사적(背景史的) 고찰이 슬라터의 후속적 연구에서는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 5) 교회와 현대인의 피상적이고 단일한 죄책의 이해에 대한 발터 부르크만 박사의 견해와 경교(*David's Truth in Israel's Imagination and Memory*, p. 4, 6-8, 114) 참고.
- 6) 베드로, 요한, 바울 세 사도들의 초대교회에서의 지도력(leadership)의 근거는 이들이 모두 예수 증거에서 다윗의 시편들을 바르게 인용했었던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필자의 견해에 대하여 필자의 「성경의 실존적 해석과 설교」(마라의 샘, 2005), p. 40-49 참고.
- 7) 발터 부르크만 박사의 다윗 연구에 관한 필자의 글(본고(本稿) p. 7-12) 참고.
- 8) 이 외에 시편 22편, 40편, 51편, 69편, 141편 등을 필자는 다윗의 현저한 메시아 시들로 본다.
- 9) 아돌프 슬라터 박사가 다윗의 역사(歷史)와 그의 시편에 대한 해석을 그의 주요 저서들에서 거의 완전히 제외한 이유가 이러한 거부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 10) “다윗의 진실”의 개진(開陳)의 시기의 정점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한 다윗의 시편들의 인용의 빈도(頻度)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 즉 예수의 수난(受難)의 시기라고 필자는 보는 바이다.
- 11) 필자는 일찍이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초기(初期) 종교개혁자’였다고 서술한 적이 있었다.
- 12) 부르크만 박사는 예수의 왕위(王位)의 예표로서의 다윗의 왕위가 현대 국가들의 정치 철학들과 더불어 가지는 연관성을 논하면서 Karl Marx, Sigmund Freud의 정치관, 그리고 Richard Nixon의 미국과 중공(中共)과의 파격적인 외교관계의 전환 등에서 볼 수 있는 정치관 등을 거론했다(p. 72, 84).
- 13) 부르크만이 다윗의 후일을 기리켜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의 표본이 된 이’로 본 근거는 다윗이 특히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탈했던 죄 때문에 그는 모든 인생 중에서도 극히 낮은 윤리적 수준의 인간으로 떨어졌었고, 그 결과 그는 인생 중에서 ‘가장 나중 된 자’의 수준에 떨어졌었으나, 그의 회개의 시들, 곧 그의 메시아 시들에서 나타난 그의 그리스도 고백과 그의 개과친선(改過遷善)의 노력을 통해서 그의 도덕적 수준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결과 그는 마침내 “먼저 된 자들”의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었음을 지적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변화된 다윗의 여생은 그의 시편 110:1의 고백 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모두 멸해 주시는”(계 12:9, 10) 최후 승리의 날까지 다윗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는” 삶을 이어갈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의 먼저 된 자의 지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음을 표명한 것일 것이다.
- 14) 부르크만 박사의 이 저서의 앞표지 다음 장에 Fortress Press에서 출판된 그의 저서들 18권이 소개되어 있고, 그 중 적어도 4권이 시편에 관한 책들로 소개되었다. 이 시편에 관한 박사의 서적들을 필자가 아직 읽지 못하였고, 이 책들에서는 박사의 시편과 신약성경과의 연결을 취급한 글들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가 우선 본서, ‘다윗의 진상’에서 다윗과 신약성경과의 연결을 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중도(中途) 반절(半切)의 연구 자세는, 아폴로 솔라티에게서와 동일하게, 극히 치명적인 오류라고 필자는 본다.
- 15) 부르크만 박사는 다윗이 생애의 초기에는 버렸던 전통(tradition), 곧 삶의 옛 형태(the olden modes of life)와 윤리에 점차 복귀하는 과정을 길게 설명하고(p. 47), 이어서 다윗의 제시하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예수 안에 있는 희망과 연결시키고 있다.
- 16) 다윗의 신앙과 성품의 탁월성의 증거들로서 부르크만 박사는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진언(進言)을 받아 드리고, 나발을 해하지 않았던 그의 관용과, 아비가일의 진언의 내용 자체(삼상 25: 30-31), 압살놈의 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제사장들이 메고 온 법궤(法櫃)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일(삼하 15:25-26),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걸어온 베들레헴 우물물을 다윗이 스스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 드렸던 일(삼하 23:16-17, 대상 2:51-54), 다윗의 성전 건축의 뜻을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지(沮止)했을 때에 다윗이 성막 안에 들어가 앉아서 드렸던 기도(삼하 7:18-29),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려는 자리에서 다윗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말 중 특히 대상 29:14-16 등을 그 예(例證)들로 거듭 들고 있다.
- 17) 요 2:17에서 요한은 다윗의 시 69:9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다.
- 18)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 사관(史官)들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직필(直筆) 정신이 얼마나 치열했든가를 우리는 능히 가늠할 수가 있다.
- 19) 바울 사도의 이 이사야 예언의 추가는 사도의 구약성경 이해가 얼마나 깊고 정확했는가를 보여주는 경이적(驚異的)인 예증(例證)의 하나라고 필자는 본다.
- 20) 각주 9 참고.
- 21)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확청(廓淸)의 기사를 남기면서 “제자들이 다윗의 시 69:7의 성취를 기억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다윗의 역사와 시편에 대해서 정통했었다(요 2:17).
- 22)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 16:6)라고 읊었던 것은 비단 그의 종족이나 영토 또는 자신의 와위나 권세의 우수(優秀)함을 노래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오묘함과 풍성함을 노래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3) 성경 연구를 중도에서 반절(半切)하는 오류에 대한 솔라티 박사 자신의 지적에 대해서 그의 저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가?」, 일어판, 佐1伯,晴郎 역, 新教出版社, 1983, I, p. 225-7, 396-7 참고. 솔라티 박사는 본서 (p. 225-7)에서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썼다. ‘하나님께서 중도반절(中途半切)의 일은 아니 하시니 만큼 우리 신자들도 범사에 중도반절의 사상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일, 또는 잡다한 사상이나 행위의 짜맞추기를 하는 일을 피할 것’을 박사는 거듭 권고하고 있다. 또 본서의 p. 396-7에 게재된 한스 슈트로의 본서에 대한 ‘해제(解題)’의 글에서 슈트로는 말하기를 ‘솔라티 박사는 본서에서 예수의 시대와 그의 말씀과의 사이의 알려져 있지 않던 연결, 신약성경의 말씀 한 마디마디의 역사적 관련성, 유일회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만민에게 관련된 하나의 복음 안에서 그 시대와 연결되어 있음이 솔라티의 글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 연결들이 언제나 예수와의 관계에서 투명함을 솔라티는 밝히고 있다. --- 또 이 책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제이차대전 발발 직전의 독일(獨逸)의 역사적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솔라티는 썼는데, 한스 슈트로의 이러한 ‘예수와 모든 성경의 역사, 예수와 모든 현실과의 연결의 개념’이 과연 솔라티 박사의 다윗사(史)를 완전히 소외(疏外)한 성경 연구 방법과는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 필자는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 24)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도 본받으면 동일한 열매가 오늘도 나타나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 25) 이러한 현상이 바로 술라티 박사나 부룩케만 박사 등 성경신학자들의 다윗의 역사와 그의 시편에 대한 연구가 거의 모두 피상적이고 중도반절(中道半切)로 끝나고 있는 사실이 교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의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술라티 박사는 다윗 개인의 역사(歷史)와 그의 시편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외면한 연구 자세를 취한 반면, 부룩케만 박사는 '구약 역사의 나머지 부분은 다윗사(史)의 한 각주(脚註)에 불과하다'고까지 볼 정도로 다윗의 위치를 극도로 중요시 하면서도 여전히 다윗의 역사와 특히 그의 시편들이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수많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함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자들의 중도 반절의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을 거쳐서, 그들 상호간의 동일 주제에 대한 극과 극의 상이점을 극복하고 절충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6) Walter Brueggemann, *David's Truth in Israel's Imagination and Memory*, p. 129. 본고 각주 4 참고.
- 27) 술라티 박사는 말하기를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것은 그들의 회당에서의 시편 이해가 부족했던 때문'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박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강조했다(*The History of the Christ*, p. 48, 195, 210, 216, 313, 374). (행 13:37 참고). 술라티 박사의 이 지적이 박사 자신의 다윗의 시편을 소외(疏外)한 연구 방법과, 나가서는 부룩케만 박사가 「다윗의 진상」에서 신약성경의 시편 인용의 경우들을 제외하고 있는 사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국 교회는 심도 있게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두 학자들의 이러한 시편 취급 방법과 관련해서 오늘 한국과 세계 교회의 시편 소외(疎外) 현상이 곧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필자는 항상 두려워하고 있다.
- 28) 술라티 박사의 윤리관의 요약은 필자의 저서, 「성경의 실존적 해석과 설교」, 마라의 샘, 2005, p. 198, 및 「논문집, 제 4집」,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p. 53-54, 「기독교 윤리생활의 발생」에서 참고하시기 바람. 술라티 박사의 저서들 중에서 그의 「기독교 윤리학」(1914)이 매우 저명한 사실을 박사의 「전기」에서 읽게 되는데(p. 154-5), 필자가 박사의 「기독교 윤리학」을 아직 참고하지 못한 점은 필자의 이 견해에 들어 있는 큰 하자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필자가 주요시하는 박사의 신약신학 저서의 하권인 「사도들의 신학」에서 다윗의 윤리에 대한 박사의 언급이 일체 누락되어 있는 점은 박사의 중대한 오류일 것이다.
- 29)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항상 직면해야만 하는 불안한 삶에서의 근원적인 동요(動搖)(행 2:25)와, 그 결국인 죽음(27)의 공포로부터의 그리스도 신앙에 의한 구원(28)의 체험 등은 실존적 설교의 극히 현저한 내적(內的) 구성 요소들이다(창 3:7-11, 신 32:35). 술라티 자신도 거듭 말하기를 '우리의 이러한 과거는 있었던 그대로 혹렬(酷烈)하게 관찰되어야하며(전기, p. 232-5, 245-6, 250, 257), 우리는 삶의 실상을 위축됨이 없이 보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p. 250, 257). Paul Tillich의 주저(主著) 「*Shaking Foundations*」의 책명(冊名)과, 그 내용 참고.
- 30) 한국성경신학회 발행의 '교회와 문화' 제 14호 (2005년 봄)에는 '다윗 역사에 대한 성경신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던 4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는데, 이승구 박사는 그 권두언에서 Walter Brueggemann의 저서, *David's Truth in Israel's Imagination and Memory*(Philadelphia, Fortress, 1986)에서 저자가 말한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다윗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는 말을 유일하게 인용했다. 부룩케만의 이 말은 그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상상(想像)으로 지나치게 해석한 점에서 필자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사(史)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 점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필자는 본다.
- 31) 필자는 1997-2003 사이 한국성경신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그 고문직에 있다.